여성환경연대
OP-5-18

15.4.12

또 하나의 10년을 내딛는 문턱에서

70대 으뜸지기 박영숙

어떤 이는 '벌써 10주년이 되었어요?'하는데 나는 20주년으로 착각한다. 까닭은 여성환경연대가 그동안 일궈낸 성과가 일감을 보면 알차고 올곧으며 연대의 폭과 민초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랑스럽고 희망을 예단할 수 있어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10년 전 어떤 연구소 사무실 한 구석에서 책상 하나와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연대활동이 오늘의 여성환경연대로 우뚝 서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함께한 남달랐던 사람들과 그들의 갈망과 열정 그리고 능력과 헌신에서 창출된 소산이라고 여겨서 감사한다.

10년간의 발자취를 나열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환경연대가 활동가의 연대에서 대중운동 그리고 지역사회운동으로, 국내활동의 울타리를 넘어 아시아를 시작으로 국제연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환경운동의 성인지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특히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생명, 평등, 평화운동에 주력함으로써 여타 환경운동과 차별화된 성장을 해오고 있는 점이다.

지난 10년간은 여성환경연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환경운동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정부로 이어지는 세 개의 정치지형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미미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반환경적인 정부정책과 대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내 힘겹게 보낸 세월이었다. 어려움 중에서도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도가 지형이 바뀌어갈 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참여정부 당시 환경운동 사상 유례없이 <환경비상시국>을 선포했던 일이나 지난해의 100만의 촛불의 여망이 무참하게 외면당한 경우 등에서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오늘 사회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의 NGO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1980년대 이래 오늘의 민주사회를 견인해낸 공익단체들과 사회서비스활동체들이 예외 없이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행정시스템은 정치와 시민사회가 소통하는 협치(governance)이다. 문민정부시기에 제기되어 국민의정부에서 형식적이나마 겨우 싹이 텄던 협치 행정의 관행이 새 정부에서 완전히 말살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접촉점이 사라졌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와 생태위기를 분명 불러올 것이다.

현 정부는 각 행정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에 예전의 30%의 시민참여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특정 시민사회참여자를 배제하는 것을 필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시민사회 후원내역을 뒷조사까지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서는 종전의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공익부문 지원 사업을 국정홍보형 사업지원으로 대폭 물갈이하며 촛불시위 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편가르기 식으로 사용하여 존재 본연의 기능을 다하려는 시민사회운동의 고사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사회는 외적인 압박이 더해질수록 내적인 결속력과 정신력이 강해지며 '때'가 차면 그 폭발력도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다. 오늘의 시민사회는 이 고비를 잘 넘길 뿐만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어떤 활동가가 말하기를 '우리는 현 정부 집권동안 자기 경계와 성찰을 통해 대안세력으로서 준비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하였다. 귀 막은 권위주의 치하에서는 내실을 다지며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여성환경연대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우

리가 담지하고 있는 강점과 보강해야 할 약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려서 강점은 더욱 살리고 약점은 특단의 대처로 해결해내면서 이번 기회에 여성환경연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가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행위의 창조성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한 사회학자도 있다.

나는 여성환경연대의 최대의 강점을 각 지역사회에 굳게 뿌리내리고 있는 풀뿌리조직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어차피 귀머거리의 귀를 열기 위한 노력이 현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며 역량낭비임을 깨달은 처지에 우리가 주력해야 할 부분은 선 자리에서 실천을 통해 환경보호를 하며 이웃에 같은 뜻으로 다가가고 있는 우리의 연대를 보살피는 일이다. 이들은 누가 뭐라 하든 외부환경이 어떻게 악화되고 있든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데서 우리는 힘을 얻는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우리의 고질적인 약점은 활동 전개에 절대 필요한 재원마련의 문제이다. 쉬웠던 적은 없지만 변화된 상황은 우리의 존립을 위협할 지경이다. 사회변화를 위한 공익활동과 정부의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서비스 활동에 대해 정부는 육성정책이 아니라 국제일변도의 정책으로 후진국을 자처해오고 있는 지금까지의 관례가 더욱 악화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재원마련방안의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일찌기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은 원래 NGO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경영하면 기업을 연상하던 생각에서 벗어나 여성환경연대도 경영마인드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던 사회적 서비스에 대가가 따르게 해서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업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미 가난한 이웃나라에게 원조 대신 무역으로 착취를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공정무역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벤처에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여성환경연대가 무에서 유를 견인해내는 무한한 창의성과 추진력을 겸비한 지도력을 담지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낼 것을 기대한다.

뜻이 있는 자와 꿈을 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신념을 가지고 또 하나의 10년을 내딛은 여성환경연대에게 하늘의 축복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또하나의 10년을 내다보는 운동에서

70대 그믐지기 박영숙

어떤이는 '벌써 10주년이 되었어요?' 하는데 나는 20주년으로 착각한다. 까닭은 여성환경운동이 그동안 일궈낸 성과가 일반에서 보편 인식과 운동을 뛰어넘어 여러 영역의 풀뿌리 민초들에게 깨친 양행력이 예상을 훨씬 넘었기 때문일것이다. 자랑스럽고 희망을 예감할수 있어서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10년전 어떤 역사적 시점을 한국에서 책상머리 공부하던 한대를 시작한 여대 활동이 왜 여성환경운동을 우뚝서게 하였는지 함께한 남달랐던 사람들과 그들이 갖고 있던 그리고 능력과 현실에서 창출된 소산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0년전의 발자취를 내일할수로 달콤한 내로 읊는다면 다만 지당스럽게 생각하는것은 여성환경운동이 여대가 활동가의 여러에서 대중운동 그리고 지역사회운동으로, 국내활동의 울타리를 벗어 아시아를 시작으로 국제연대에서의 지도력발휘, 환경운동의 생명력 제고 및 더우러 특히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생명, 평등, 평화운동에 주력하므로 여타 환경운동과 차별화되고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은 여성환경운동을 둘러싼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중심의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정부로 이어지는 세계의 정치지형 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너무 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인 반환경적인 정책정책 과 대처해야하는 활동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내 한계에 부딪혀 왔다. 여러분들에서도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정도가 지방이 보다 강하다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환경운동사상 유례없이 <환경비상시국>을 선포했던 일이나 지난해의 100만의 촛불의 여망이 두드러게 여러 강한 경우등에서 그정도를 가늠할수 있을 것이다.

오늘 사회여러분께 이곳은 국제적의 NGO들이 처한 상황을 어떠한가? 1980년대 이래 오늘의 민주사회를 견인해 낸 공익단체들과 시민사회스레공학을 등해들이 여러 많이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에 바라는 지속가능한 환경 더우러나는 민주사회를 위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행동시스템은 정치적 시민사회 소통하는 체제(Governance)이다. 운영방식기에 제기적의 국민의 정부에서 행정적이나마 거의 정상이 흐르던 체제 정권에 따라서 대화부에서 완전히 운영에까지 통제되고 시민사회의 참여권이 되지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와 생태위기를 불러 왔고있다는 증거이다.

한정부가 참여정부처에서 단절하는 양극 위기적에서 예산의 300% 이 취임식에 국회를 지켜서 있는것을 볼때 특히 시민사회 참여권을 예제 하는것 을 비롯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 기업들의 사회공헌팀의 시민사회 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있다.

그리고 대내로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서는 소외계층 지원사업 및 공익부문 지원사업을 국정홍보처에서 국으로 대폭 옮기고 해외 홍보비등에 집행하고 있는데 국내홍보비를 국민의 세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올해의 기능을 다하려는 시민사회 운동의 고사를 막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압박이 더해질수록 내부의 결속력과 성숙도가 강해지며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여력이 더해질 것이다. 오늘의 시민사회는 이고비를 잘 넘길 뿐만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는 우리는 정부와 파트너로서 전기 경제의 성장을 통해 대안세력으로서의 공동체를 알고 있다고 하셨다. 귀한 국회의원의 시민사회에는 내실을 다져야 대중을 위한 공동체를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예방환경운동은 예방은 나의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답답하고 우선 강화와 유지해야 할 약점이 무엇인지 모른 기존의 장점은 더욱 살리고 약점은 특단의 대처를 해결해 내부의 이해관계의 예방환경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가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예방환경운동의 최대의 강점을 국가사회에 준게 뽑아내라고 앗스틸백의 귀를 열기위한 노력이 현재에서는 무의미하게 역량강화 없을 깨달고 이곳이 같은 뜻으로 뭉쳐서 우선 우리의 오래를 보호하는 일이다. 이들을 두고 어려움은 힘을 얻는다.

(그렇다는 지금까지 없을 것이라는 데서 우리는 재원마련의 문제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현재 상황은 우리의 존재를 위협할 지경이다. 사회안전을 위한 공익활동과 정부의 책임을 분담하는 시민서비스 활동은 당연히 정부가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리더십과 확대정책이냐 국제적으로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 차별화의 문제가 약한 것이다. 시민사회전체의 재원마련방안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은 NGO를 위해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전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경영이란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에서 벗어난 예방환경운동도 경영마인드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지원의 리더로 유능으로 제공되는 시민사회서비스에 대한 대응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우리사회에 착수되고 있는 '시민사회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시민사회 기업이란 정의라는 수준을 이용하여 시민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형태를 말한다고 한다. 예방환경운동은 이러 기반한 이웃나라에게 원조되는 목적으로 착취를 위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공정무역이라는 시민사회 기업을 추진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로운 변화에 용기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방환경운동이 우에서부터 제안해 내는 무한한 창의성과 추진력을 갖추고 지금을 답답하고 있게이 오늘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더욱 대응해야 이끌어 내는데 대로 성장 중심을 활용해 보자고 기대한다.

→ 또이 아는데 같은 국가에게도 빠른이 같이 일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더욱 더 이러한 내용을 대단는 예방환경운동에 힘을 보태 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박영숙 선생님께

여성환경연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소식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씨앗을 뿌리고 지난 10년 세월동안 한결같이 가꾸어 오신 선생님글이 머릿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모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외부 여건도 많이 어렵고 시민사회 내부의 고민도 많은 시기를 보내면서 여성환경연대의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선생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환경연대를 만드셨을 당시의 꿈과 기대,
그리고 지난 10년의 세월의 기억과 단상들,
요즘의 정국에서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후배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며 거는 기대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한이 촉박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금주말 5월 17일(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원고지 14매 (A4 용지 1장반 정도)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여성환경연대 [redacted]
또는 팩스 [redacted]
담당자는 이자회 ([redacted]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보은올립니다.